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2 in D major, Op. 43
작곡가: Jean Sibelius (1865–1957)
장르: 4악장 교향곡
작곡 시기: 1901~1902년
초연: 1902년 3월 8일, Helsinki, Helsinki Philharmonic Society, Jean Sibelius 지휘
개정판 초연: 1903년 11월 10일, Stockholm, Armas Järnefelt 지휘
범위: 1902년 초연판과 1903년 개정판의 관계를 포함한 전곡

IMSLP: Symphony No. 2, Op. 43

Wikipedia: Symphony No. 2 (Sibelius)

Jean Sibelius의 Symphony No. 2 in D major, Op. 43은 1901년부터 1902년까지 작곡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이 글은 전곡을 다루며, Allegretto, Tempo andante, ma rubato, Vivacissimo, Finale: Allegro moderato의 공식 순서를 따라간다. 초연은 1902년 3월 8일 Helsinki에서 Sibelius 자신이 지휘했고, 작품은 초연 뒤 개정되어 1903년 11월 10일 Stockholm에서 Armas Järnefelt의 지휘로 개정판이
처음 연주되었다 .

작품의 출발점은 이탈리아 Rapallo에서 적은 스케치와 핀란드로 돌아온 뒤의 장기간 수정에 있다. 짧은 상승 음형과 악기군의 응답은 처음부터 완성된 주제로 제시되지 않고, 네 악장에 걸쳐 더 넓은 선율과 종결부로 자라난다. 이 구조 때문에 초연 당시의 청중과 평론가들은 종악장의 D major를 핀란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들었지만, Sibelius가 완성된 교향곡에 하나의 공개 프로그램을 붙인 것은 아니다.

출판 정보와 개정판

초연판 총보는 Helsinki의 Fazer & Westerlund에서 1903년에 출판되었다 . Sibelius는 초연 뒤 작품을 상당 부분 손질했고, 개정판은 1903년 11월 10일 Stockholm에서 Armas Järnefelt의 지휘로 처음 연주되었다 . 1905년에는 출판권이 Breitkopf & Härtel로 넘어가면서 작품이 독일어권과 국제 음악계에 더 넓게
유통되었다 . 초판은 후대 판본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서지 기준이며, 개정판의 세부 수정은 어느 총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연주의 표면과 균형에 영향을 준다.

작품은 Axel Carpelan에게 헌정되었다 . Carpelan은 Sibelius에게 이탈리아 체류를 권하고 비용을 마련한 후원자였으며 , 1901년 11월 Sibelius의 편지에서 작품이 처음 symphony II 로 언급되는 시점과도 연결된다. Breitkopf & Härtel의 출판사 해설은 초연 준비, 악보 필사, 출판 계약, 수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이 과정은 교향곡이 Rapallo의 초기 스케치에서 곧바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초연을 앞둔 재검토와 출판을 위한

수정 속에서 현재의 형태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

소요 시간

전곡은 약 45~46분이다 . 지휘자의 템포와 판본에 따라 몇 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 다음 수치는 개별 녹음의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공연을 계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다 .

- **I. Allegretto:** 약 9~10분
- **II. Tempo andante, ma rubato:** 약 14~15분
- **III. Vivacissimo:** 약 6분
- **IV. Finale: Allegro moderato:** 약 13~15분

제 3악장과 제 4악장은 끊김 없이 이어진다 . 따라서 프로그램상으로는 네 악장이지만 , 후반부는 빠른 스케르초의 추진력이 종악장의 D major로 계속되는 하나의 긴 흐름으로 체감된다 .

편성

- 목관악기 :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 금관악기 : 4 horns in F, 3 trumpets in F, 3 trombones, tuba
- 타악기 : timpani
- 현악기 : 1·2 violins, violas, cellos, double basses

Clarinets는 제 1·2·4악장에서 A조 , 제 3악장에서 B-flat조로 표기된다 . 이는 악기 수가 바뀌는 편성 변화가 아니라 악장별 조성 및 파트 표기의 차이다 . 전체 편성은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의 관현악을 사용하지만 , 작품의 힘은 악기 수를 계속 늘리는 방식보다 짧은 목관 신호와 현악의 박동 , 호른과 트럼펫의 응답을 서로 다른 위치에 놓는 방식에서 생긴다 .

네 악장의 진행

I. Allegretto

제 1악장은 현악이 만드는 짧은 상승 음형으로 시작한다 . 이 세 음의 진행은 처음부터 완성된 주제라기보다 , 목관과 호른이 받아 적으며 점차 더 긴 선율로 드러나는 핵심 재료다 . Sibelius Club의 해설은 이 악장에서 명확한 제 2주제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 처음의 단편들이 작곡 과정과 청취 과정에서 서서히 하나의 통일성을 보인다고 정리한다 .

악장은 목관과 금관의 응답 , 현악의 반복적인 움직임 , 더 넓어진 선율을 차례로 연결한다 . 발전부에서는 처음의 상승형과 하행하는 음정 관계가 여러 모습으로 돌아오고 , 종결부에서는 악장 초반의 목가적인 표면이 다시 나타난다 . 이 회귀는 처음의 작은 음형이 관현악의 큰 절정까지 확장된 뒤 원래의 성격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 준다 .

II. Tempo andante, ma rubato

제 2악장은 Tempo andante, ma rubato로 표시된 느린 악장이다.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긴 pizzicato가 먼저 이어지고, bassoon이 낮고 불안한 주제를 제시한다. Sibelius가 1901년 Rapallo에서 적은 스케치에는 Don Juan이 어둠 속에서 죽음과 마주하는 장면을 가리키는 메모가 남아 있으며, 다른 스케치에는 Christus 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이 메모들은 완성된 교향곡의 공식 줄거리가 아니라 작곡 과정에서 특정 재료를 붙잡기 위해 사용한 발상의 기록이다. 제 2악장은 bassoon과 낮은 현악이 만드는 위협적인 움직임에서 출발해, 더 평온하고 종교적인
성격의 선율로 이동하고, 두 영역을 다시 변형한다. 죽음과 구원의 대조로 읽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작품 전체를 Don Juan 이야기의 표제음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자료의 범위에 맞다.

1902년 초연 당시 지휘자 Robert Kajanus는 이 악장을 당대의 불의에 대한 항의로 묘사했다. 이 발언은
작품을 둘러싼 핀란드의 정치적 수용을 보여 주지만, Sibelius가 같은 의미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악장 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긴 pizzicato, 낮은 bassoon 선율, 대비되는 두 선율의 변형과 재등장이다 .

III. Vivacissimo

제 3악장 Vivacissimo는 빠른 scherzo와 느린 trio가 교대하는 구조다. 현악의 빠른 움직임은 앞 악장의
무거운 시간감을 뒤집고, 목관과 금관의 짧은 신호는 그 운동을 계속 밀어붙인다 . 이어지는 trio에서는 oboe가 더 느리고 노래하는 선율을 내놓아, 악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질주하지 않도록 균형을 만든다.

trio 뒤에 scherzo가 돌아오면 앞서 들은 빠른 재료가 다시 움직인다. 마지막에는 상승하는 세 음형이 다른 조성으로 확대되며 제 4악장을 향한 다리를 만든다. 이 연결은 두 악장이 같은 악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작곡가가 제 3악장의 끝을 완전한 종지로 닫지 않고 종악장의 시작에 필요한 운동을 남겨 둔다는 뜻이다.

IV. Finale: Allegro moderato

제 4악장은 Finale: Allegro moderato로 표시된 D major 종악장이다 . 현악의 상승 음형이 다시 나타나고, 이번에는 트럼펫이 목관 대신 넓은 응답을 더한다. 제 1악장의 작은 재료가 종악장에서는 큰 선율과 금관의
장대한 윤곽으로 변한 셈이다.

종악장의 부주제에는 제 2악장에서 들은 위협적인 성격이 다시 나타난다. Aino Sibelius의 회고에 따르면
오보에가 제시하는 한 재료는 자살한 처제 Elli Järnefelt를 기억하며 쓴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전언은 악장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선율에 붙은 작곡가 가족의 회고다. 종악장은 이 어두운 재료와 성스러운 성격의 선율을 지나 점점 더 넓은 D major의 결말로 나아간다.

Sibelius Club의 해설은 마지막에서 상승하는 세 음형이 마침내 네 번째 음으로 진행하는 순간을 종악장의
강력한 효과와 연결한다. 이 설명은 ‘승리 ’라는 표제보다 악장 전체에서 작은 음형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방식에 근거한다. 종악장의 밝은 결말은 핀란드의 독립과 연결된 수용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음악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연 당시와 후대 청중이 부여한 해석의 층위에 놓인다.

작곡 배경과 수용

Sibelius는 1901년 겨울 Rapallo에 머물면서 교향곡의 초기 재료를 적기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스케치는 Don Juan과 죽음, Christus 라는 표제를 가진 선율을 제 2악장의 발상과 연결한다. 그러나 작품은 1년이 넘는 수정

과정을 거쳐 네 악장 교향곡으로 완성되었고 , 초기의 표제적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작곡
과정과 최종 작품의 구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02년 초연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통치와 언어 ·문화 정책을 둘러싼 긴장 속에 있었다. 종악장의 D major와 영웅적인 성격은 일부 평론가에게 국가적 독립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 작품에는 훗날 ‘독립의
교향곡 ’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Breitkopf & Härtel의 해설은 당시 평론가들이 작품을 국제적이면서도 핀란드 정신을 지닌 음악으로 평가했고, 전체가 하나의 큰 crescendo를 이룬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고 기록한다.

이 수용은 작품사에서 중요한 기록이며, 종악장의 음향을 정치적 선언으로 읽은 맥락을 남긴다. Sibelius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사위 Jussi Jalas에게 이 교향곡을 ‘영혼의 고백 ’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Osmo Vänskä도 1998년 작품을 국가의 독립 투쟁과 개인의 위기 ·전환점이 함께 있는 음악으로 말했다. 두 발언은 정치와 개인의 의미가 공존하는 현대적 해석을 보여 주며, 악보의 공식 표제와 구분되는 자료다.

연주 전통과 레코딩

Sibelius Club은 제 2번 교향곡을 작곡가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자주 녹음되는 작품으로 소개한다. 이 평가는 작품의 국제적 수용 범위를 보여 주지만, 특정 음반 하나를 해석의 표준으로 확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초연을 Sibelius 자신이 지휘했고, 개정판을 Armas Järnefelt가 처음 연주했다는 사실은 두 초기 연주 전통을 구별하는 출발점이 된다.

Kajanus의 1902년 발언은 제 2악장의 항의와 종악장의 위로를 정치적 수용의 언어로 설명하고, Vänskä의 1998년 발언은 국가적 역사와 개인의 내면을 함께 언급한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시대의 지휘자가 작품을 어떤 맥락에서 조직했는지 보여 주는 해석 사례다.

주요 자료

Sibelius Club, Second symphony op. 43: 초연판과 개정판, Rapallo 스케치, 악장별 구조,
Robert Kajanus·Osmo Vänskä 등 지휘자 발언.

Breitkopf & Härtel, Sibelius: Symphony No. 2, Afterword: 작곡ㆍ초연ㆍ출판 과정, 초연기의
평론과 정치적 수용, 작곡가 발언의 자료 성격.

Sibelius.fi, Orchestral works: Sibelius 작품군과 공식 기관 경로 보조 확인.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2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7:22 UTC by 안준영